

세계도시동향

Global Urban Trend

헤드라인뉴스 주차 인프라 부족 해소 위해 '공유주차장' 확대

산업·경제 민간 우주개발산업 성장의 기반이 된 청위경제권
스타트업 활성화 위해 고등학생 대상 교육 및
시드머니 지원

사회·복지

지역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결식가정을 돕는 '기부 벽'
프로그램

행재정·교육

고등학생 대상 비대면 멘토링 프로그램 활성화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북·중·남미〉		〈아시아·아프리카〉		〈유럽〉	
뉴욕	윤규근	쿠알라룸푸르	홍성아	암스테르담	장한빛
로스앤젤레스	최윤경	싱가포르	이은주	베를린	신희완
샌디에이고	김민희	뉴델리	박원빈		유진경
샌프란시스코	박신아		박효택		홍남명
시카고	강기향	자카르타	박재현	프랑크푸르트	이은희
올랜도	박혜진	도쿄	이선인	하노이	이희재
워싱턴 D.C.	이정근	광저우	손지현	스톡홀름	허윤희
하와이	임지연	베이징	정민욱	바르셀로나	박정수
휴스턴	이경선	상하이	문혜정		진광선
에드먼턴	장지훈	충칭	모종혁	런던	이용훈
토론토	고한나	칭다오	강경이	로마	서동화
		나이로비	한 울	피렌체	김예름
				보르도	김준광
				파리	김나래

주차 인프라 부족 해소 위해 ‘공유주차장’ 확대

중국 칭다오시 / 도시교통

칭다오시는 주차난 해소 및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공유 주차자원 발굴과 주차 인프라 증설 등의 방식으로 주차 가용 자원을 확대하는 중. 장기적으로는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통자원 스마트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

배경

- 도시 주차여건 개선 및 주차 인프라 구축/관리는 도시교통 발전의 전제조건이자 해결이 시급한 민생 현안
 - 칭다오시 내 차량 증가 속도에 비해 주차 인프라 구축 속도가 더디고, 특히 구도심은 협소한 도로, 주차시설 미비 등의 문제로 주차난이 극심한 편
- 칭다오시는 ‘공유 주차자원 발굴’, ‘신규 주차공간 증설’, ‘주차 관리/단속 강화’, ‘주차 시스템 스마트화’ 전략을 병행하며 도시 내 주차 수급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 중

주요 내용

- 공공기관 및 민간 사업장 주차장을 공유 주차공간으로 교차 활용
 - 일과(日課)시간을 제외한 시간대에 공공기관 및 민간 사업장의 주차공간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건부로 개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 2021년 7월 칭다오시 내 공공기관, 민간 사업장 전용 주차장 15곳을 1차로 개방
 - 11월에 2차로 169곳을 개방해 총 184개 공유주차시설(주차면 12,500개) 확보
 - 12월까지 도시 내 360여 개 기관 및 사업장이 공유주차장 사업에 참여해 총 2만여 개의 주차면을 확보할 계획
 - 공유주차장 이용방법
 - 이용 대상 차량: 7인승 이하 비영업용 자동차
 - 개방시간은 다음과 같음. ① 평일: 원칙적으로 당일 오후 6시부터 개방하고, 다음 날 오전 7시 30분까지 출차(出車)해야 함. 당일 저녁 10시에서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는 입출차(入出車) 금지, ② 공휴일(주말, 법정공휴일): 전일(全日) 개방하되,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입출차 금지
 - 2회 이상 주차 규정을 어기거나, 출차 규정을 위반하고도 시정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로 분류해 추후 주차장 이용 제한

- 현재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공유주차’ 온라인 예약제 시행
 - 계정 등록 후 본인 인증을 거치면 온라인 예약 가능
 - 온라인 예약 후 규정 시간 내에 입차(入車)하면 주차장에서 별도 등록 절차 없이 바로 출입 가능
- 주차시설 인프라 증설 및 가용 주차자원 확대
 - 칭다오市는 2021년 연초에 연내 공용주차장 37곳 착공 계획을 발표
 - 2021년 12월 초 현재 32곳이 완공되었거나 공사 중으로, 1만 6천 개 주차면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나머지 주차장도 단계적으로 공사에 착수할 계획
 - 지하철역/기차역 구간에 P+R(Park and Ride)형 주차장¹⁾ 신설, 유휴공간을 활용한 기계식 입체주차장(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전용 기계와 시설이 갖추어진 다층 구조의 주차시설) 건설, 공원과 접목한 지상공원형 주차장 설계 등 다각적으로 주차 인프라를 조성 중
 - 일례로 구도심 재개발 사업과 함께 추진되고 있는 ‘리우제커우’(六街口: 타이안루, 베이징루, 지난루, 타이구루, 톈진루, 페이청루의 6개 도로로 갈리는 교차로) 지하 주차장은 원형 교차 구간을 ‘지상 공원+지하 주차장’ 형태의 공공시설로 조성할 예정



[그림] 리우제커우 지상공원형 지하주차장 시공계획도

(출처: 칭다오市 자연자원계획국(青岛市自然资源和规划局) 홈페이지)

<http://zrzygh.qingdao.gov.cn/n28356074/n32564219/n32567530/211118143731795066.html>

- 스마트화를 통한 ‘도시 전체가 하나의 주차장’ 프로젝트 실현을 목표로 함
 - 장기적으로는 교통 스마트화 플랫폼을 구축해 도시 전체의 주차자원을 하나로 연결해 통합 관리/운영하는 시스템을 조성해나갈 계획

1) P+R(Park and Ride)형 주차장은 승용차와 대중교통 간 연계 및 환승을 위한 주차장으로, 이용객들이 승용차를 세워놓고 전철이나 기차로 환승이 가능하도록 설계

-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차자원의 스마트화를 시행 중
 - 청양(城陽)구 사례: 지역 내 공공 주차공간 6,000면과 34개 기관 및 사업장이 제공하는 공유주차장 1,962면을 이미 확보한 상태. 스마트 주차 관리 플랫폼(城陽停車)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주차정보 검색, 주차공간 예약, 전자결제 등 서비스 이용 가능

향후 계획

- 실제 주차 수요와 기존 공유주차장 건설계획에 입각한 합리적, 과학적인 주차 인프라 건설
 - 지하공간, 자투리 공간 발굴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주차장 보급
 - 녹지, 도시경관 등 주거환경과의 조화를 최대한 고려한 설계 추진
- 도시 전역의 주차자원 개방, 공유 추진
 - 호텔, 상가, 체육시설, 관광지, 오피스빌딩, 은행 등 업무/상업공간의 주차장이나 여건이 되는 주택/아파트 단지의 유휴 주차공간도 공유주차장 시스템에 점차 편입시켜 나갈 예정
- 도시 교통자원의 최적화 및 스마트화를 점진적으로 실현
 - 주차공간의 단순 확장/증설에 그치지 않고 지역 상황에 맞는 ‘인프라 건설+스마트화 구축+교통 최적화’ 조합 전략으로 과학적 통합과 촘촘한 관리를 병행해 나갈 계획
 - 주차 인프라 구축/관리는 도시계획, 도시건설, 교통법, 가격정책 등 다양한 분야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부분이므로 과학적 분석, 종합 대책 마련, 장기적 관리가 필요

<https://baijiahao.baidu.com/s?id=1717984903168850538&wfr=spider&for=pc>

<https://view.inews.qq.com/a/20211208A01UZW00>

<http://www.qingdao.gov.cn/>

<http://zrzygh.qingdao.gov.cn/n28356074/n32564219/n32567530/211118143731795066.html>

<http://zrzygh.qingdao.gov.cn/n28356074/index.html>

강 경 이 통신원, jiongli1011@naver.com

민간 우주개발산업 성장의 기반이 된 청위경제권

중국 청두市 외 / 산업·경제

중국 4대 핵심 경제권 중 하나인 청위경제권은 우주개발의 터전인 시창위성발사센터를 시작으로, 현재 로켓 및 인공위성 본체와 부품 제작을 전담하는 중국 민간 우주개발산업의 기반이 되었음. 중국의 민간 우주개발산업은 2014년에 허용된 뒤 2019년 말까지 관련 민간기업이 78개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

청위(成渝)경제권의 우주개발 역사와 터전

- 청위경제권은 충칭시와 청두(成都)시를 포함한 쓰촨(四川)성 전체를 포괄
 - 충칭시는 1997년 중국 4대 직할시 중 하나로 승격되기 이전 쓰촨성에 속해 있었음
 - ‘청(成)’은 청두시의 약칭이고, ‘위(渝)’는 충칭시의 약칭
 - 청위경제권은 중국 4대 경제권 중 하나로, 중국 내륙에서 유일한 핵심 경제권
 - 중국 4대 경제권은 수도권으로 발해만을 끼고 있는 징진지(京津冀)경제권, 상하이(上海)시와 주변인 장강(長江)삼각주경제권, 광둥(廣東)성과 홍콩, 마카오까지 포괄하는 주강(珠江)삼각주경제권 그리고 청위경제권을 가리킴
- 청위경제권에서 우주개발의 시작이자 터전은 시창(西昌)위성발사센터
 - 시창위성발사센터는 1970년대에 유인 우주선을 발사하려는 중국의 우주개발계획인 ‘714프로젝트’로 건설을 시작
 - 본래 시창위성발사센터는 쓰촨성 멘닝(冕寧)현 저위안(澤遠)진의 산속 협곡에 있어 넓고 평평한 지대가 아니고 교통이 아주 불편함
 - 하지만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의 선제 핵공격을 전혀 받지 않는 위치였고, 산속 협곡에 있어 미국 첩보위성의 감시로부터 엄폐가 가능했으며, 주취안(酒泉) 및 타이위안(太原)위성발사센터보다 적도에 훨씬 가까워 위성발사센터로 낙점됐음
 - 1980년에 완공되고 1984년 첫 위성 발사에 성공한 뒤, 지구 정지 천이 궤도(GTO)를 도는 통신위성, 방송 중계위성 등을 발사하는 위성발사센터로 자리 잡음
 - 2000년부터 시작되어 2020년에 완성된 중국의 위성항법시스템인 베이더우(北斗) 위성을 실은 모든 로켓 발사체가 시창위성발사센터에서 발사됐음
 - 55기의 베이더우 위성을 실어 나른 로켓은 창정(長征)3호갑, 창정3호을, 창정3호병이었는데, 1997년부터 외국기업으로부터 위탁받은 인공위성도 쏘아 올림



[사진] 2018년 2월 시창위성발사센터를 방문 시찰한 시진핑 국가주석 (출처: 신화통신)

민간기업이 우주개발에 참여하게 된 과정

- 과거 중국은 군사적인 목적에서 우주개발을 시작해 국가 주도로 대대적인 투자가 이뤄졌으나, 기술 혁신에 한계를 절감
 - 중국의 우주개발은 1970년 4월 주취안위성발사센터에서 최초의 인공위성인 동광홍(東方紅)1호를 실은 로켓인 창정1호가 발사되면서 시작
 - 현재는 미국, 러시아에 뒤이은 세계 3대 우주강국이지만, 정부와 민간이 조화롭게 발전하고 있는 미국과는 일정한 격차를 유지하고 있음
 - 2020년 중국의 우주개발 예산은 88억 5,300만 달러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0.04%에 불과해, 미국의 우주개발 예산 476억 9,100만 달러 및 GDP 대비 비중 0.21% 수준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 2014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혁신이 필요한 핵심분야’로 우주개발을 꼽으면서, 중국 정부는 민간자본이 우주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개방
 - 그 뒤 국영기업이나 순수 민간자본이 투자해 설립한 영리 목적의 우주개발 관련 회사가 빠르게 증가
 - 2019년 말까지 우주개발 관련 민간기업이 78개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
 - 이 중 29개는 인공위성과 부품을 제작하고, 21개는 로켓과 부품을 제작하며, 19개는 위성 데이터로 원격탐사자료를 분석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음

민간 우주개발산업 성장의 기반이 된 청위경제권

- 청위경제권은 전통산업부터 첨단산업까지 고루 갖춘 제조업 경쟁력과 창정 로켓 및 인공위성을 생산하는 기술력으로 로켓 및 인공위성 본체와 부품 제작을 전담
 - 과거 국가 주도로 우주개발이 이루어졌기에 연구개발(R&D)은 수도인 베이징 일대에서 주로 이뤄지지만, 로켓 및 인공위성 본체와 부품 제작은 청두와 충칭에서 진행됨
 - 인공위성과 로켓은 청두와 충칭에서 핵심 부품을 생산하고, 전국 각지에서 모은 부품을 더해 청두에서 최종 조립하는 형태
 - 청두비행기공업그룹(CAC)은 중국 4세대 전투기인 쟈(殲·J)-10,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쟈-20을 개발해 생산 중인 중국 항공우주산업 분야의 핵심기업
- 중국에서 두 번째로 민간기업이 발사한 상업용 로켓인 구선싱(谷神星)1호도 쓰촨성 청두와 쟈양(簡陽)에서 제작
 - 구선싱1호는 2018년에 창립된 베이징의 싱허(星河)동력공간과기회사가 개발해 2020년 11월 발사에 성공
 - 싱허동력공간과기회사는 원활한 회사 경영을 위해 R&D센터까지 청두의 항공우주산업단지로 옮기는 것을 고려 중



[사진] 2020년 11월 발사에 성공한 중국의 두 번째 민간 상업용 로켓인 구선싱1호 (출처: 신화통신)

<https://baike.baidu.com/item/西昌卫星发射中心>

<http://sc.cri.cn/2021-10-18/3c4c12e4-6b8a-e6f1-644e-622f47c6bf42.html>

<https://news.sina.com.cn/c/2021-04-29/doc-ikmyaawc2600743.shtml>

<https://www.163.com/dy/article/FPUL3IJJ0514R9L4.html>

<https://baijiahao.baidu.com/s?id=1653219457274611419>

모 중 혁 통신원, jhmo71@naver.com

스타트업 활성화 위해 고등학생 대상 교육 및 시드머니 지원

인도 델리 NCT¹⁾ / 산업·경제

델리 NCT 정부는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고등학생 대상 ‘기업가 정신’ 관련 교육 프로그램과 실습용 시드머니를 지원하고 있음. 스타트업 아이디어의 사업화 및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해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함으로써 창업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정책적 배경

- 인도는 고성장 경제와 저임금 노동력을 기반으로 2018년 기준 미국과 중국 다음의 세계 3위 스타트업 국가²⁾, 유니콘 기업³⁾ 수는 세계 4위로 각각 평가되며, 스타트업 강국으로 성장하고 있음
-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는 전자상거래 형태의 IT 산업, 유통·물류업 등을 중심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도시별 특성과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으로 구축되고 있음
 - 델리 NCT 지역은 공공부문 및 비즈니스 중심으로 특화되어 발전 중임

주요 내용

- 델리 NCT 정부는 기존의 여성 또는 중소기업 지원에 더하여 고등학생(9~12학년) 대상 창업활동 지원을 통해 스타트업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 Mindset) 관련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스타트업 팀을 매칭시켜 참여 학생당 2천 루피씩 시드머니를 지원해 사업 아이디어의 구체화를 통한 실습 과정도 병행
- 학생당 1천 루피 지원을 통해 30만 명으로 구성된 약 5만 개 스타트업 팀이 몇몇 우수 사례를 선보임에 따라, 학생당 2천 루피로 금액을 늘려 총 6억 루피로 예산 확대
 - 예를 들면, 한 스타트업 팀은 7천 루피의 자본금을 활용, 재생 휴대전화기 재판매를 통해 2만 2천 루피의 이익을 거둠

1) 델리 NCT(National Capital Territory of Delhi)는 올드델리(Old Delhi)와 뉴델리(New Delhi)를 합친 델리 수도직할지역, 뉴델리시가 인도의 수도

2) 전 세계 투자유치액 기준으로 전체 투자금액의 5.4%를 차지

3) 기업가치 기준으로 10억 달러(약 1조 2천억 원) 이상으로 평가받는 비상장 스타트업

- 고등학생 대상 스타트업 웹사이트를 개설해 학생들이 개발·제작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사업 아이디어에 투자 또는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도입
 -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매주 스타트업 전문가·경영자를 초빙해 현장 강연 및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창업 노하우, 현장경험 등을 공유
 - 또한 학생 스타트업 팀들이 서로 경쟁하는 TV 프로그램을 제작해 제품 판매, 홍보와 함께 투자유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창구 제공

정책 평가

- 델리 NCT 정부는 스타트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며, 지원 대상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해 아이디어를 사업화해주는 동시에 간접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해보는 진로체험 기회도 제공
- 이를 통해 양질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



[사진] 고등학생 스타트업 모습

https://www.business-standard.com/article/current-affairs/delhi-govt-likely-to-roll-out-start-up-film-policies-within-a-month-121110801932_1.html

<https://www.indianexpress.com/article/education/delhi-govt-launches-tv-show-to-help-schoolchildren-pitch-start-up-ideas-to-investors-7646688/>

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2010000&bid=0002&list_no=9635&act=view

<https://www.outlookindia.com/website/story/india-news-delhi-govts-seed-money-gives-wings-to-school-kids-business-dreams/394226>

<https://www.thehindu.com/news/cities/Delhi/govt-school-students-get-chance-to-scale-up-their-business-ideas/article37859520.ece>

박 원 빈 통신원, samc21@naver.com

지역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결식가정을 돕는 ‘기부 벽’ 프로그램

캐나다 캘거리市 / 사회·복지

캘거리市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결식가정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부 벽’(Giving Wall) 프로그램을 시행. 이 프로그램은 지역 주민들이 결식가정 등을 위해 식당에서 음식을 미리 주문/계산해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동시에 도모

배경

- 캐나다 최대 식품 지원 자선단체인 캐나다 푸드뱅크가 캐나다 내 4,750개 이상의 식품 지원 지역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해서 발간한 HungerCount 2021 보고서(<https://hungercount.foodbankscanada.ca/>)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대비 식품 원조(援助) 수요가 20.3% 증가
 - 이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식품과 주택 가격 상승, 높은 실업률 등이 주요 원인
 - 특히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학생들이 무료 아침/점심 급식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늘어 결식아동이 증가
- 방역조치 시행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방문이 제한되면서 폐업 사례 증가
- 캘거리市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악화하고 있는 빈곤층의 식료품 부족 및 결식 문제 해결과 지역 소상공인의 사업 지속을 위한 방안을 고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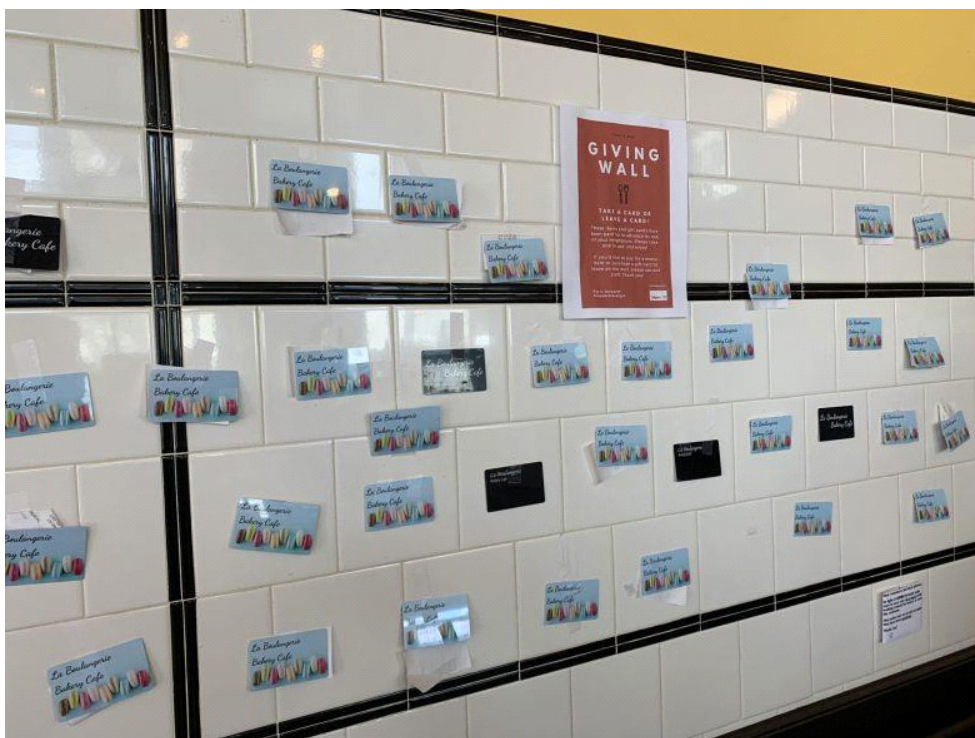
주요 내용

- 캘거리市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비즈니스 부문 지원 태스크포스’(Business Sector Support Taskforce)에서 ‘기부 벽’ 프로그램을 시작
 - ‘기부 벽’(Giving Wall) 프로그램은 지역 음식점, 카페 등에서 비용을 지불할 여력이 없는 사람을 위해 지역 주민이 식음료를 대신 구입해서 제공해주는 제도
 - 태스크포스는 격주 회의를 열어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도시의 상공인과 만나 논의
- 매장에서의 직접 지원과 온라인 상품권 지원 방법이 있음

- 테이크아웃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지역 주민들은 추가 메뉴에 대해 선불로 비용을 지불하거나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음
- 구매한 상품권 또는 미리 계산을 완료한 영수증을 매장 내 지정된 벽에 붙여 놓으면 매장 방문자 누구나 사용 가능
- 기부 영수증을 부착할 수 있는 벽이 매장 내에 없는 경우 지역 주민들은 온라인 또는 전화로 메뉴를 주문하고 결제함
 - 무료 식사를 원하는 사람은 매장을 방문해 미리 음식 값이 지불된 메뉴를 제공 받을 수 있음
- 온라인 주문을 위한 상품권을 추가하는 옵션을 메뉴에 포함
-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음식점이나 지역 주민 등은 여러 가지 경로를 이용할 수 있음
 - 공식 사이트(calgary.ca/givingwall)를 방문해 행사 프로그램 팸플릿을 다운로드 받아 매장 내 벽에 부착
 - 식료품점이나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는 기프트 카드를 市 학생지원팀(Education Matters)의 이메일 주소(info@educationmatters.ca)로 보내면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전달
 - 市 학생지원팀은 또한 결식 학생을 위해 '기부 벽' 프로그램을 활용
 - 일부 음식점과 지역공동체에서는 무료 식사가 필요한 사람들의 별도 신청을 받고 기부자가 음식을 등록하면 순서대로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함

프로그램 평가

- 도심을 중심으로 총 20여 개 매장이 '기부 벽' 프로그램을 실시 중이고, 계속 확대되고 있음
- 市는, 이 프로그램이 지역 소상공인들이 사업/영업을 계속 유지하고, 저소득층의 식료품 부족 및 결식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
 - 음식점 등에 대한 지원이 지역사회의 현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를 유지하는 데 있어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사진] 식당 내부 한 쪽 '기부 벽'에 부착된 상품권과 영수증

(출처: <https://calgaryjournal.ca/2021/05/31/giving-wall-a-new-initiative-helping-restaurants-and-those-in-need-cities-hospitality-industry-and-those-in-need/>)

<https://newsroom.calgary.ca/the-giving-wall-a-pay-it-forward-food-initiative-helping-businesses-and-customers/>

<https://www.calgary.ca/business-economy/investment-and-support/the-giving-wall.html?redirect=/givingwall>

https://tgcacalgary.com/the-giving-wall-pay-it-forward-initiative-at-the-tgca/?fbclid=IwAR2uYiqn_7EiliVoPWH0emBeCuYjYRRtneeTknEM0u9WPF03CXICAdD7JCI

장 지 훈 통신원, macgyvar@gmail.com

고등학생 대상 비대면 멘토링 프로그램 활성화

인도 델리 NCT¹⁾ / 행정정·교육

델리 NCT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비대면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전문가 멘토와 고등학생 멘티를 모바일 앱으로 연결하는 방식의 일대일 맞춤형 멘토링을 진행해 학생들의 진로 설계 및 정서적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

정책적 배경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청소년 학습결손 및 교육격차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 자녀일수록 학력 저하 현상이 심각
 - 공교육의 공백, 소득 상위층의 온라인 사교육 수강 등이 교육격차를 확대하고 있음
- 특히 청소년기 진로 교육은 학생의 잠재능력을 발견하고 학생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는 중요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소외당하고 있음

주요 내용

- 델리 NCT 정부는 공립학교 고등학생(9~12학년) 대상 비대면 멘토링 프로그램(Delhi Desh Ke Mentor)을 하반기 신학기부터 제공하고 있음
 - 청소년 멘티와 직업 상담을 위해 엄선된 멘토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매칭하고 중간 모니터링도 철저히 진행하면서 안전한 멘토링 환경을 조성
-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한 지원자를 멘토로 선정/등록하고 있으며, 이들 전문가는 5명 정도의 학생을 대상으로 멘토 역할을 수행하면서 멘티들의 진로와 일상을 챙기는 개별 상담체제로 진행
 - 웹사이트를 통해 멘토 지원자를 접수
 - 만 35세 이하의 대학생, 회사원, 창업가 등이 멘토가 될 수 있음
- 등록된 멘토는 공식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정된 멘티와 매일 10여 분간 통화하거나 일주일에 한 번씩 접속해 상담과 함께 장기적인 계획을 제시. 진로 이외에도 성적, 학교 생활 등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1) 델리 NCT(National Capital Territory of Delhi)는 올드델리(Old Delhi)와 뉴델리(New Delhi)를 합친 델리 수도직할지역. 뉴델리시가 인도의 수도

- 카스트·종교 등 차별을 초래할 수도 있는 개인정보 공유 또는 언급 금지
- 이와 같은 교류를 통해 진로 적성 탐색과 고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상담이 필요한 멘티와의 매칭을 통해 진로, 성적 등에 대해 고민하는 학생에게 경험·정보와 함께, 심리적 안정감 등을 제공
- 2021년 말 기준으로 5만 9천여 명의 멘티가 1만 5천여 명의 멘토와 교류하고 있으며, 향후 30만 명 수준으로 멘토를 확대해 지역 내 10만여 명의 학생들에게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 지금까지의 상담 실적은 1만 건 이상의 전화통화로 1만 7천 시간 이상의 상담시간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

정책 평가

- 코로나19 장기화로 공교육 사각지대가 확대됨에 따라 델리 NCT 정부는 진로 부문 교육 활성화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이를 일부 해소
- 지역 학생들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손쉽게 멘토를 검색해 상담할 수 있으며, 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 설계 및 역량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그림] 멘토링 프로그램 홍보 안내문

<https://www.deshkementor.com/#our-impact>

<https://www.hindustantimes.com/cities/delhi-news/delhi-cm-launches-desh-ke-mentors-programme-101633975509671.html>

<https://www.news18.com/news/education-career/sonu-sood-is-desh-ke-mentor-all-you-need-to-about-delhi-govts-mentorship-programme-4132490.html>

<https://www.policeresults.com/desh-ke-mentor-yojana/>

<https://www.thehindu.com/news/cities/Delhi/sonu-sood-to-be-brand-ambassador-for-desh-ke-mentor-programme/article36145924.ece>

박 원 빈 통신원, samc21@naver.com

세계도시동향 제518호

발행인 유기영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5102
발행일 2021년 12월 27일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 정책 개발과 도시 관련 연구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
해외 주요도시의 정책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해외통신원들이
시의성 있는 사례와 정확한 현지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도시동향에 관한 문의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실 출판팀 세계도시동향 담당
(trees29@si.re.kr)에게 연락 바랍니다.

